

뉴스룸을 위한 AI 정책 가이드

2022 년과 2023 년 초에 걸쳐 전 세계에 생성 AI 모델이 공개된 이후, 미디어 산업 전반에도 활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.

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거나 콘텐츠와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뉴스조직은 생성 AI(예: Bard, Bing, Dall-E, Midjourney 등)를 사용하여 오디오, 코드, 이미지, 텍스트, 시뮬레이션 및 비디오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.

AI 는 콘텐츠를 개인화하고,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,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,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도입과 적용이 예상된다.

생성 AI 는 언론사 뉴스를 비롯 다양하게 수집된 데이터베이스(대규모 언어모델)를 학습하여 패턴을 찾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예측하고 정보를 내놓는다. 현재로서는 그 정보를 평가하거나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, 그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다.

생성 AI 는 뉴스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.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을 수 없고, 편향적일 수 있으며, 허위조작정보 등 정보 생태계를 교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.

.목적과 범위

AI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 목표, 표준 또는 가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다.

- AI 정책 프레임워크의 목적은?
- 언제, 누가 가이드를 보강할 것인가?
- AI 가이드에 질문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가?

원칙

투명성, 책임성, 공정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언론사의 핵심 원칙을 설명한다.

투명성

고려할 질문:

- AI 도구는 업무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생각하는가? 그 방식은 무엇인가?
- 생성 AI 를 사용할 때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?
- AI 를 사용한다면 독자에게 공개할 것인가?
- AI 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?

책임성

고려할 질문::

- 생성 AI 로 제작한 콘텐츠의 정확성과 독창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?

공정성

* AI 는 능력, 성별, 인종, 민족, 나이에 따른 편견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연구에 따르면 편견은 실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모든 보도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확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-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?

정확성

고려할 질문:

- 기자, 편집자는 생성 AI 로 제작한 콘텐츠의 정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?
- 뉴스룸 구성원은 이 검증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업데이트할 것인가?
- 독자가 AI 기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?

분야

편집

고려할 질문:

- AI 도구를 편집 목적으로 사용하는가? 그렇다면 누가, 어떻게, 언제, 왜 사용하는지 설명한다.

기사 작성

뉴스룸은 기자의 업무를 존중한다.

고려할 질문:

- AI 도구를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것인가?

이유 설명:

- AI 도구를 텍스트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, 그 이유를 설명한다.
- AI 도구를 텍스트 콘텐츠에 사용할 경우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.

사진/영상/이미지

뉴스룸은 사진기자와 미술기자의 콘텐츠를 존중한다.

고려할 질문:

- AI 이미지를 쓸 것인가? 언제?
- 보도사진을 제작 또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설명하는 데 AI 도구를 사용하는가?
- 선호하거나 채택하는 특정 이미지 생성기가 있는가? 이를 공개할 것인가?

이유 설명:

- 생성 AI 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할 경우 어떻게 바이라인을 달 것인가?
- 생성 AI를 사용하여 이미지, 사진, 일러스트레이션,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것인가?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?

안전/개인정보보호/윤리

IT 보안 부서, 편집 또는 독자위원회, 시니어 편집자(간부), 법무 부서,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.

고려할 질문:

- AI 도구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, 그 결과물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
- 콘텐츠의 사실 확인은 누가 하는가?
- 기자 등 사람이 참여하는가? 그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가?
- 해당 국가의 저작권, 개인정보보호법 및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?
- 독자/이용자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?

지적재산(Intellectual Property)

IT 보안 부서 및 법무 담당자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.

고려할 질문:

- 생성 AI 도구를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?
- 뉴스룸의 콘텐츠를 AI 도구에 추가할 수 있는가?
- 한국의 저작권법(공정 사용)은 무엇이며, IP 보호에서 고려할 내용은 무엇인가?
- 생성 AI 를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규정(유권해석)은 무엇인가?

기회와 적용 사례

새로운 콘텐츠(멀티미디어),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. 생성 AI 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적극 공유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.

예시:

-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안
- 헤드라인 변경 및 제안
- 스토리 아이디어 생성
- 프롬프트 제안
- 요약문 작성(기업 실적 발표, 컨퍼런스, 법률안 등)
- SEO(검색엔진 최적화)
- 번역
- 콘텐츠 추천
- 트랜스크립션(Transcription)

외부 기고자 규정

외부 필자가 생성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규정을 마련한다. 뉴스조직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다.

-기고자가 AI 도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?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가?

-콘텐츠의 정확성과 독창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?

이 규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담당 편집자는 기고자에게 생성 AI 사용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.

출처: DCN(<https://digitalcontentnext.org/>) 재가공

참고: 이 문서는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.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공동으로 뉴스룸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 즉,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저작권 제도 등을 살펴야 하며 시장 환경에 맞는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.